

北 태권도시범단 美 시범공연 성황

외신들 뜨거운 관심...초청자 측 "정치적 성격 없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모습

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은 민간을 통해 상호교류를 증대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양국의 회해 분위기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작년에도 북한 태권도 선수들의 미국 방문이 추진됐으나 북한이 확실함을 진행하고 있던 때여서 미 대사관이 여행증명서 발급에 제동을 걸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태권도 시범 공연의 성사는 가까워진 양국의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10일자 기사에서 지난 6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CBS 스포디오센터에서 선보인 시범 공연을 CBS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CBS코퍼레이션 레슬리 문

베스 사장은 CBS TV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첫 미국 공연에 대해 "북·미 관계개선에 도움이 있었고,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트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연을 성사시킨 정우진 태권도타임즈 발행인은 "이 행사는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순수 태권도인들이 마련한 무도행사로 정치적인 성격이 없어선 안 된다"며 "이번 행사는 태권도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민간교류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 시범단 미국 순회 공연과 관련, 북한 시범단을 지원한 인사와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아 행사의 투명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성원 기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시범 공연을 했다. 13명으로 구성된 북한 시범단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LA를 비롯해 샌포린시스코, 애틀랜타 등 대도시를 돌며 공연을 펼쳤다. 북한 시범단을 인솔한 국제태권

도연맹(ITF) 총재인 정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태권도의 미국 공연을 성사시키기를 오랫동안 희망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실현됐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미국의 무도 잡지 <태권도 타임스>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공연은 많

<시더피즈(아이오와)=바
 출호 기사> 북한태권도시범단
 의 미국 순회공연을 이끌고 있는
 장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시카고의 2016년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
 했다.
 장 위원은 11일 아이오와주 시더
 피즈에서 가진 본보와의 단독 인
 터뷰에서 "시카고의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이런 "현재 유치 도시 중에
 시카고가 가장 앞서 있다. 그 이
 유는 대륙 연맹의 원칙 때문"이라
 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은 현재 시카고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와 스페인 마드리드, 헝
 가리 등 IOC에서 지지하고
 있는 대륙 연맹의 원칙과 국민들의
 지지, 국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유치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브라질의 경우
 2014년 월드컵 유치를 단독 신청
 해 대회를 치르는 것이 확정적이
 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
 포츠 이벤트를 2년 내 관공 나라
 에 유치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
 에서 올림픽을 증명할 수 있다. 또 불안
 한 국내 정세도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장흥(이진호 기자) IOC 위원과 2016 시카고 올림픽위원회 패트릭 라이언 위원장이 10일 시더피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장흥은 올림픽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보 전용 북한 IOC 위원 단독 인터뷰
라이언 시카고유치위원장과도 면담
"태권도 공연은 북미 관계개선 상징"
 시카고 유치는 위력을 택하기 보
 장 위원의 분석이다.
 이는 월드컵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또 마드리드는 2012년 런던 올림
 픽에 이어 2차례 연속 유럽대륙에
 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한들다고
 지적했고 도표는 국내 지지가 부족
 하다는 점을 들었다.
 장 위원은 10일 시더피즈를 방
 문한 2016년 시카고 올림픽위원회
 패트릭 라이언 위원장과 1시간 이
 상 할담했다. <3면에 계속>
 polipch@koreadaily.com

"시카고 올림픽유치 가능성 '높다'"

The Korea Daily • Saturday, October 13 2007 • (847) 228-1200 • 49935호

주요인사

www.khs2.com 100년 창간 기념 11월 11일 대환을공 888-404-2424

Saturday, Sunday Clinic
 영수담 메디칼 그룹
 아, 하얀 가건트의 품위
 25 N. 14th St. # 505 San Jose, CA TEL. 408.280.7255



주요 영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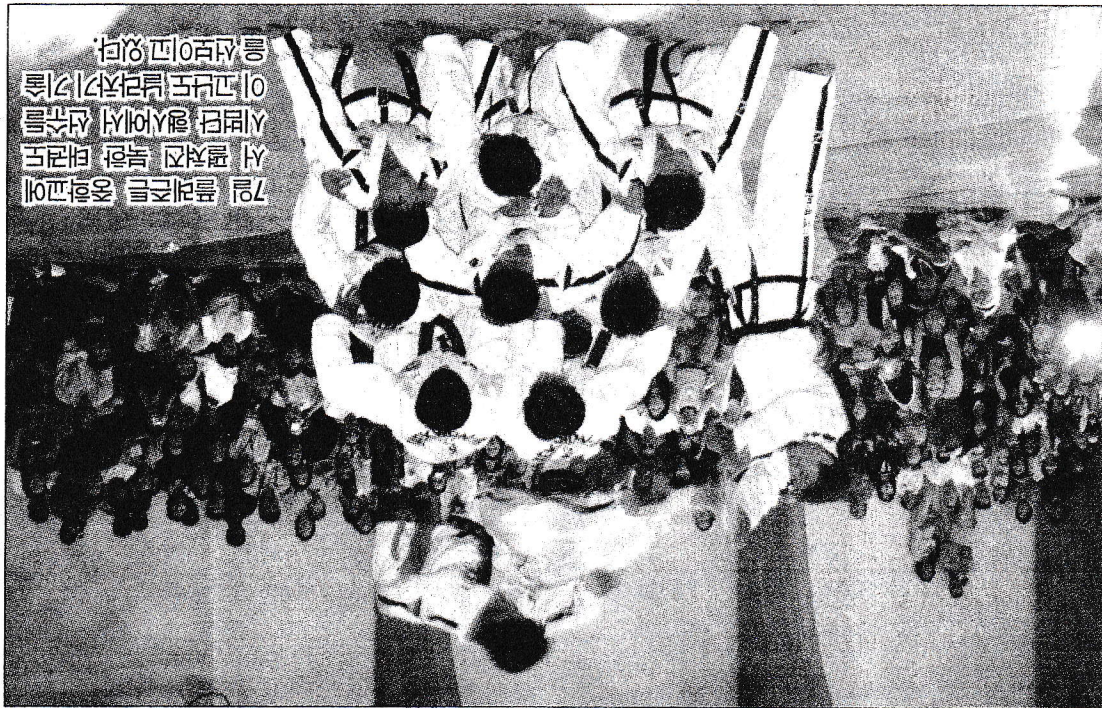
The Korea Daily

<San Francisco> KoreaDaily.com • (510)487-3333

한민족 전통 무예 기백 선보였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 품세·호신술·격파 “일품”

1,000명 박수 갈채... 인운기 등장에 한민족 단속도



7일 북베트남 중학교에
 시범단원 4명, 태권도
 시범단원 4명, 호신술
 시범단원 4명, 격파 시
 이 시범단원 4명, 격파 시
 동선보이인이다.

▶ 관계기사 3면/화보 4면
 북조선태권도위원회 소속 '2007
 굿윌투어(Goodwill Tour) 시범
 단'이 북가주 행사를 통해 한민족
 전통 무예의 기백을 선보였다.
 약 1,000명의 관중들이 자리한
 가운데 7일 오후 북베트남 중학교
 체육관에서는 '2007 굿윌투어
 (Goodwill Tour)' 태권도팀의 시
 범 행사가 열렸다.
 12명의 시범단은 이 행사의 그랜
 드 마스터 김태연 라이트하우스 대표
 가 속해있는 용사, 장수원 태권도
 팀의 품세, 격파 시범, 미국 인디
 언들의 전통춤, 율동패 이고
 (E.G.O)의 공연에 이어 등장했다.
 국제태권도연맹(ITF) 품세 때
 르고 있는 시범단은 이번 행사에서
 ITF의 24개 품(품세) 중 기본기
 인, 단군과 고간재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영양물'을 비롯, 고난
 이도의 승핀, 벽돌깨기, 각종 호신
 술, 발차기 기술을 선보였다.
 시범단은 품세의 한 동작 동작마다
 고도로 장식된 비룡이 머그구멍을
 통해 지나가는 듯한 "뽀"기합소리를
 내뿜어 절도감을 더했다.
 20170센터 기량 보이기에 있는
 승핀을 던져가 격파하고 6개의 벽
 통을 연이어 박살내는 단련과 파피

력으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
 가 구조하는 희극적인 요소들도 가
 띠, 웃음을 선사했다.
 외국인 관람객 캐터 비씨는
 "이주 화교한 시범을 보여줘, 태권
 도를 배우는 자녀들과 함께 온 보
 보
 호신술 시범때는 남녀 선수들이
 연인으로 분장, 불량배들에게 위
 험을 던지는 남자전구를 여자전구

onee@koreadaily.com

<3면에 계속> 승병주 기자

북한

태양여행사
 예약문의: \$1099-TAX
 213.252.9700
 24시간 예약센터

Saturday, October 6, 2007 A

THE KOREA TIMES

조순원 후보 사퇴 민주당 경선 불만



민주당 조순원(사 진) 후보가

5일 대선후

보 경선을

중도에 포

기하고 후

보기를 사퇴키로 결정했다.

조 후보는 지난 달 30일 이인제 후보와의 동원·공천선정 의혹과 이에 대한 중앙당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선거운동 전담위원을 선언했으나 중앙당이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경선 보이콧에 들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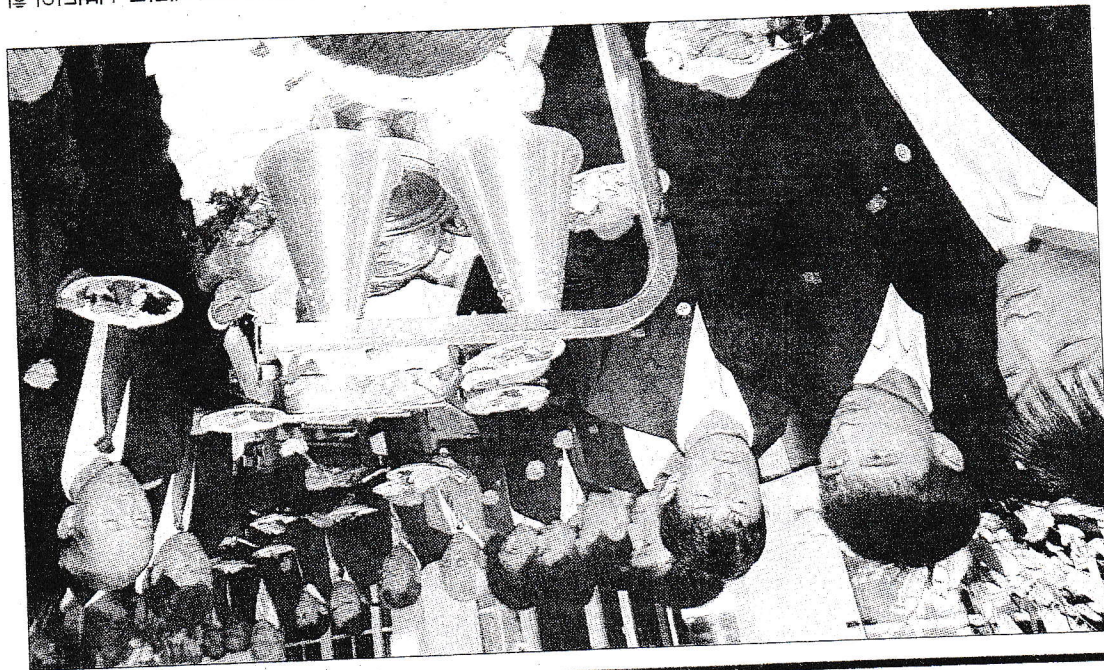
북한 태권도 시범단 14일 미



친선, 화해, 평화를 주제로 한 북한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이 아이오와 점스 태권도 관장인 이스빌(켄터키), 애들랜타(조지아) 등을 방문한다. 태권도 타원 스 발행인 정우진 고단자(사진)에 의해 초청된 이들은 미주 5개 도시를 돌며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지난 30일 달라스에서 가진 미 고단자회 이사회에 참석한 정우진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미주에 서 펼쳐지는 ‘Goodwill Tour 2007’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전 예는 없었던 북한 태권도의 진수를 보게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태권도 화영 민중 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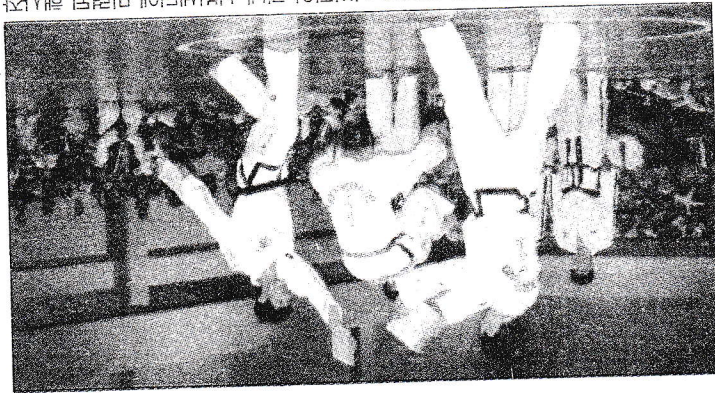


5일 오후 7시 CBS스튜디오 서울에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화영 민중이 불렀다. 한편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최명호 LA총영사(맨 오른쪽), LA민주평통 차중화 회장과 지역인사들과 정용 100위원과 시범단 전원이 참석해 화담

이은호 기자

‘평화의 기함소리’, 애들랜타에 용려 퍼져

14일 애들랜타를 방문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귀넷 시범센터에 마련된 행사에서 격파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북한태권도 시범단 공연

우선 회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애들랜타협의회 정재수 회장, 등단부 태권도 연맹 이덕선 회장, 배웅단 부사단 의회장 등이 참석해 북

한태권도에 오고 있다

오해와 편견의 송판도 함께 깨졌으면...”

북한 태권도 북기주 시범

상상 처음으로 미국 순회 시범 위해 지난 4일 오전 LA를 통해 입국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월)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당일 오후 4시 플레젠튼 중 고 체육관에서 북한 태권도의 노를 선보였다.

증진에 공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영사와 답사가 끝난 후 정수원 마샬아트 아카데미에서 두 차례의 격파 시범이 있었으며 북미 인디언의 전통춤이 이어진후 북한 태권도 시범단 관계자들과 주최측 관계자들, 그리고 관객들이 한테 어우러진 '강강수월래'를 연상케 하는 북미 인디언 서클 댄스가 있었다. 이후 UC버클리 EGO의 시범놀이가 이어졌다.

시범이 나온 총12명의 북한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은 첫번째 순서로 '단군' 품새를 선보여 이날 모인 1200여 관객들에게 태권도가 가진 박력을 느끼게 했다. 품새 시범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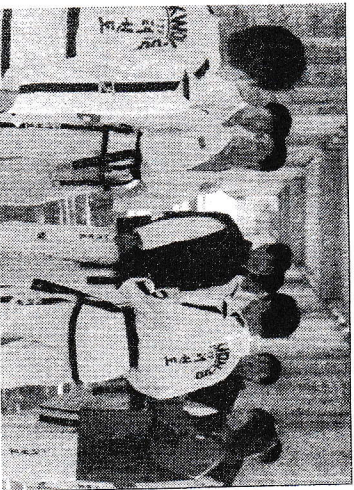
종류의 격파 시범이 있었으며 호신술 시범도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진지하기만 할 것으로 생각됐던 이날 태권도 시범은 여성관객 한 명을 데리고 나와 여러명의 '강패' 돌을 상대하는 호신술 시범, 리슨금 선수가 태권도를 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보호하면서 여러명의 '강패' 돌을 때려눕히는 시범 등을 선보여 많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함께 통쾌함을 선사했다.

시범이 끝난 후 정수원 TTF 총재는 "11시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1시부터 식사하고 시간공백이 적었는데 (선수들이) 참 잘

했다"면서 "시범이니까 메달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온 차례가 의의가 있다"며 "동포여러분들을 만나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배능만 단장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과 동포 여러분들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통일된 조국에서 꼭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한국과 미국 교화청년단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후 김태연 라이트 하우스 회장 자택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가했다. 8일(월) 오전에는 실리폰밸리,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한 뒤 저녁 6시부터 오를랜드 아시안문화센터에서 북기주준비위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시범단은 오늘 오후 2시 아이오와로 떠난다.<박승범 기자>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회장이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방문을 이끈다. 시범단은 다음달 아이오와의 켄터키주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태권도로 북미 관계 개선 희망”

북한 태권도 시범단 초청 정우진 회장

▶ 관련기사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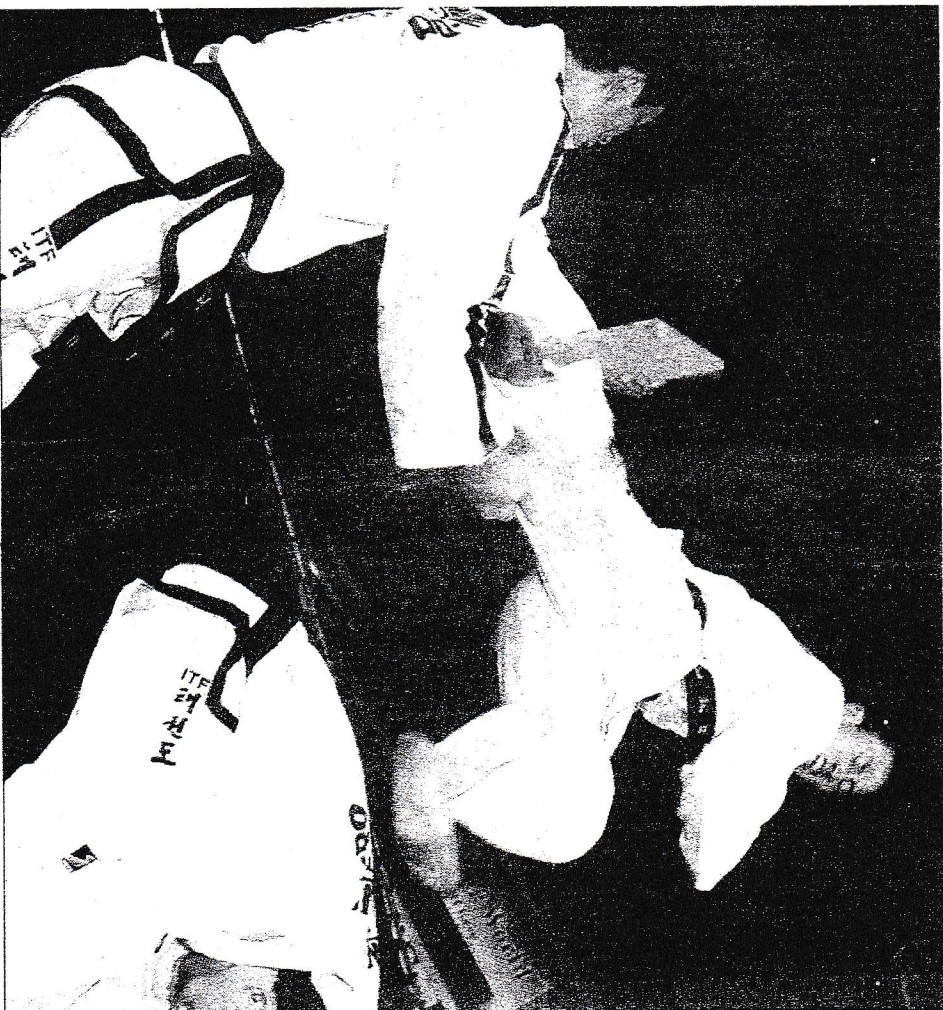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로 수교를 했듯이 북한과 미국도 태권도로 더욱 가까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달 6일부터 14일까지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켄터키 주지아주를 순회하며 북한태권도 시범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회장은 본

한 태권도 시범단의 mouth of the world이지만 작년에 이 위기로 연기됐다. 올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일 현재 공연장소는 모두 시범단의 미국, 영국, 캐나다를 받은 것으로 확정. 회장은 “현재 18명 단에 대한 신원조사가 있는데 이번달 말까지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아이오와 · 켄터키서도 시범 공연

'태권외교' 시동



12면·화보 13면 5개 도시 순회공연차 미국을 방문중인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6일 CBS 스튜디오 센터 나무를 견파하고 있다.

북한 태권도 시범공연 성황



바다빌더 홀시트로 TV시리즈를 '헬코'에서 주인공역을 맡았던 루 페리노(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참석해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김상진 기자>

남·북·미국 '하나된 축제'

중요일보 후원

시상 처음으로 미국영에서 열린 북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북 그리고 미국을 하나로 통합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 CBS 스튜디오 센터 야외 특설무대에서 할러스타 돈 드캐

월스의 사회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 한 태권도 시범단 12명은

합동 품세 시범, 고난이도의 발차기 시범과 벽돌, 송판, 기왓장 격파 시범, 그리고 호신술 시범 등 태권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탄성을 지어냈다.

특히 간접성 시범단원의 기왓장 연속 격파를 끝으로 시범단 공연이 막을 내릴 때는 2000여

통해 태권도 팬이 되버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 관객들 외에 이날 공연에는 마이클 클리우즈맨 CBS 스튜디오 센터 사장, 드라마 '헬코'의 전설적인 바다 빌더 루 페리노 등 할리우드 유명인사와 최병호 LA 총영사, 최중환 평통LA지역협의회장, 미 태권도의 아버지 이준구 시범, 장웅 IOC 위원 및 국제태권도연맹(ITF) 등 남·

잇단 모기에 타인종도 열렬한 박수
CBS 사장 "정렬이래 가장 역사적"

한 평통LA지역협의회장, 미 태권도의 아버지 이준구 시범, 장웅 IOC 위원 및 국제태권도연맹(ITF) 등 남·